



나훈아, 은퇴 시사

“58년 ... 고마웠습니다”

“가황(歌皇) 나훈아가 데뷔 58년 만인 27일 갑작스럽게 은퇴를 시사하면서 가요계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나훈아는 이날 소속사를 통해 “박수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의 진리를 따르고자 한다”고 밝히며 마지막 콘서트 일정을 공개했다. 그는 은퇴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올해 콘서트가 그의 마지막 무대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간 대외적인 접촉을 극도로 꺼려온 나훈아는 이날도 편지 외에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아 마지막 콘서트의 의미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나훈아와 수십 년의 인연이 있는 동료 가수, 작곡가들은 은퇴를 암시한 발표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면서도 그간 나훈아가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실행에 옮긴 것 같다고 했다. 나훈아와 친분이 깊은 한 원로 가수는 통화에서 “공연이 매번 솔드아웃(매진) 되지 않냐”며 “직접 공연을 연출하고 음악도 연구하니 새로운 무대를 만드는 데 대한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고 씩씩 씩씩 말하곤 했다”고 전했다. 1966년 ‘천리길’로 데뷔한 나훈아는 ‘무시로’, ‘잡초’, ‘갈무리’, ‘울기 왜 울어’, ‘입 그리워’, ‘강촌에 살고 싶어’, ‘물레방아 도는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사랑 받았다. 부산 출신인 그는 초등학교 시절에 시 교육위원회 개최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하는 등 어릴 적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여왔다. 가수의 꿈을 안고 상경한 뒤로는 여러 작곡가 사무실을 전전하며 데뷔 기회를 엿보다 취업 예정인 가수를 대신해 노래하며 기회를 잡았다. 그는 목포 출신 남진과 각각 경상도와 전라도를 대표하며 1970년대 가요사에서 서로 다른 외모와 음악 스타일로 강력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다. 2006년 데뷔 40주년 공연을 끝으로 2007년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취소하면서 건강 이상설 등 각종 루머에 시달렸고 기자회견까지 여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후 여러 차례 복귀설이 제기되다 2017년 11년 만의 컴백을 알렸고, 새 앨범 ‘드림 어게인’을 선보이며 건재함을 보여

왔다. 같은 해 11월 컴백 공연을 펼친 뒤로는 매해 신보를 발매하거나 콘서트를 열면서 꾸준히 무대 위에 올라 ‘노년돌’이라고도 불렸다. 그는 2020년 추석 연휴 KBS 2TV에서 방송한 공연 ‘2020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에서 ‘테스형’을 불러 전국적인 화제를 불러오기도 했다. 공연을 열었다 하면 매년 행렬을 기록해 온 나훈아는 반세기 넘게 독보적인 음악 스타일과 창법으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가수로 평가받는다. 압도적인 가창력과 쇼맨십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나훈아는 한국적인 정서를 녹인 곡을 직접 만들고 화려한 공연 무대를 연출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박성서 대중음악평론가는 “뒤집고, 꺾고, 굴리고, 여러 테크닉들을 더해 본인만의 창법을 만들었고, 같은 노래도 나훈아가 부르면 다르게 불리는 게 있다”며 “복잡한 세상살이를 귀에 쏙 들어오도록 표현한다는 점도 대중 가수로서 그만이 가졌던 강점”이라고 전했다. 나훈아는 전통 가요의 계보를 잇는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편하를 씻어내기 위해 노력한 가수로도 알려져 있다. ‘아리랑 가수’, ‘아리랑 소리꾼’으로 불리고 싶다고 언급해온 나훈아는 “전통 가요를 불러온 대중가수의 한 사람으로서 ‘뽕 짝’, ‘트로트’라는 호칭이 아닌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해 아리랑이라고 칭하자”며 “아리랑이라 호칭하기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한식 대중음악평론가는 “전통 소리라는 차원에서 트로트를 바라보고, 폄하됐던 트로트가 전통 가요라는 장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도록 도움을 준 가수”라고 평가했다. 최규성 대중음악평론가는 “한국적인 정서를 본인의 음악에 녹여내려고 노력한 인물이고, 공연에도 국악기를 동원해왔다”며 “한국적인 이미지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결속체처럼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나훈아와 인연이 깊은 또 다른 원로 작곡가는 “60년 가까이 한결같이 사랑받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국민 가수가 되고 진짜 예술인이 되고 스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수칠 때 떠나라”
진리 따르고자 한다”
소속사 통해 편지 공개
4~7월 마지막 콘서트

70년대 남진과 라이벌
‘무시로’ 등 히트곡 다수
2020년대 ‘테스형’ 화제
직접 작곡·공연 연출
펼쳐던 트로트 복원 노력

위안부 피해자와 함께한 1세대 활동가들

광주여성재단, 다음달 12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 초청 강연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일본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함께한 1세대 한일 활동가들’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연다. 3월 12일 오후 2시 재단 3층 은새실에서 진행하며 강연자는 중앙대 사회학과 이나영 교수. 정지기역연대 이사장인 이나영 교수는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왔다.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부회장을 비롯해 지난 20년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기지촌 여성 인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실천지식을 펼쳐 왔다. 강연은 ‘일본의 배반기: 죄책감과 공감의 길’,



이나영 교수

“한국 위안부 운동의 시작”, ‘일본 내 시민운동으로 확장’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연 후에는 사전 접수된 질문들을 토대로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한다. 김경례 대표이사는 “성평등 사회를 이룩하는 데 첫 단추가 되는 것은 과거 문제 중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닐까 싶다”며 “이번 자리가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시 쓰기·그림책·어린이 작가 교실...

광주문학회, 3월12일~5월18일 상반기 정기프로그램 개설

지난해 9월 개관한 광주문학회관은 광주에 최초로 들어선 문학관이다. 북구 각화동 시화문화마을커뮤니티센터에 동지를 틈 문학관은 광주문학 역사를 표현한 기획전시실, 5월 문학자료가 비치된 상설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광주문학회관이 2024년 상반기 정기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프로그램은 시 쓰기, 그림책, 어린이 작가 교실, 책 만들기 등이며 부문 별 3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10회 진행된다. ‘나를 찾는 시간과 시 쓰기’(화요일 오전 10시)는 시 쓰기를 통해 나 자신을 찾는 방법을 모색한다. 성인 20명을 모집하며 강사는 한경숙 시인. 심선숙 강사가 진행하는 ‘책이랑 함께 놀아요’(화요일 오후 3시 30분)는 초등 저학년 15명이 대상이다. 공예, 게임, 놀이를 활용해 책과 더 친해지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재료비 1만5000원. ‘그림책과 공예’(수요일 오전 10시)는 책 주제


와 관련된 토막 공예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다. 성인 20명이 대상이며 이용남 강사가 진행한다. 재료비 1만3000원. 어린이에게 글쓰기 재미와 자신감을 갖게 하는 시간도 있다. 임선규가 진행하는 ‘어린이 작가교실’(목요일 오후 3시30분)은 초등2학년 이상 15명을 모집한다. ‘시를 노래하라’(금요일 오전 10시)는 시낭송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도순 강사가 진행하며 성인 20명이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김순영 강사가 펼치는 ‘나만의 책 만들기’(토요일 오전 10시)는 초등 전학년 15명을 모집한다. 이 강좌는 자작시를 써보고 자신의 감성을 그림으로 표현해 나만의 책을 만드는 과정이다. 재료비 2만원. 희망자는 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전화 접수도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 정기 강좌

3월 2일~31일 인문학카페 노블

인문적 통찰과 미학적 승화를 모토로 하는 광주 시민인문학 커뮤니티 112기 정기강좌가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오후 2시 인문학카페 노블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 키워드는 철학, 대화법, 하루키 등으로 리얼리티(실천) 인문학을 지향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월요일(4, 18일)에는 ‘몸·언어·철학’ 시간에는 서명원 교수가 ‘체험주의:신체화된 마음’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수요일(6, 20일) ‘민주시민교육’ 시간에는 신광용 책임 연구원이 ‘토론기법: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주제로 강연하며 목요일(14, 28일)에는 위상복 교수

가 ‘맑스 세미나’ 일환으로 ‘레닌 ‘국가와 혁명’ 강독’을 진행한다. 금요일(8, 22일) ‘하루키월드’ 시간에는 신우진 이사장이 신작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을 모티브로 시민들과 함께한다. 일요일 당일치기로 진행되는 ‘인문택시’에는 진정한 이사가 등이 호남문화기행(공지)을 펼친다. 한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명해영인문교실’(목요일 제외)도 다채로운 강좌가 마련돼 있다. ‘ESG 인문학’, ‘소셜투어보기’, ‘영화인문학’, ‘철학스터디’, ‘인생, 에세이’ 등을 주제로 한 강좌가 각각의 시간에 따라 진행된다. 참가비 4만원이며 강좌별 5인 이상 등록 시 실강.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가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가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가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